도시축제와 공동체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

김미성*

1. 머리말
2. 도시화와 지역 공동체문화
   2-1. 전통사회에서의 공동체
   2-2. 도시화의 과정과 의미
3. 축제와 도시공동체문화
   3-1. 우리나라 도시발전과 공동체 형성
   3-2. 한국축제의 현주소
4. 도시축제와 공동체문화 재창조를 위한 과제
   4-1. 축제의 본질에 관한 재인식의 필요성
   4-2.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도시축제 발전방향
5. 맺음말

국문요약

그간 행해져온 축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축제의 경제적 효과, 축제기획과 활성화방안 등에 치중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문화현상으로서의 축제와 축제를 통한 지역 및 도시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증대되고 있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가 희박한 실정이다. 해방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과정의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화 율은 세계최고에 이르렀다. 해방직후 13.0%였던 도시화 율은 2000년에 89%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도시팽창과정에서 도시의 문화성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최근 들어 해방 이후 진행된 급속한 도시화 과정은 전국에 양적으로 비대화한 도시들을 다수 만들어냈을 뿐 아직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만한 도시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흐름을 도시로 유인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사이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일상적 문화와 더불어

www.kci.go.kr

* 연세대학교 강사

문화적 일탈을 허용하는 축제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축제를 통해서 현대인은 경제적 풍요로움, 시간적 여유를 바탕으로 한 자기만족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민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인 취향을 즐길 수 있는 도시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탐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도시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정책과 축제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문화공동체적 관점에서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축제와 공동체문화 재창조를 위해서는 우선 축제의 본질과 도시에서의 공동체문화에 관한 재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동체는 직접적 대면을 기초로 한다. 도시의 축제는 지역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이 되며, 만남의 경험을 통해 혹은 만남의 경험 가운데 지역사회를 재발견하게 된다. 말하자면 축제는 지역민과 지역 간의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관심 없이 지냈던 내 지역이 훌륭한 문화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지역사회의 '아름다움'과 '살기 좋음'을 재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야 말로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기초가 될 것이며, 지역민 하나하나가 가지게 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은 결국 '우리'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본적인 의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도시축제 발전방향으로 ① 젊은 층의 참여 유도, ② 관광 지향적 축제의 지양, ③ 각 도시의 특성과 부합하는 축제, ④ 함께 '향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축제라는 네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축제, 도시축제, 관광, 공동체 문화)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커다란 조류에 의하여 정주형태와 문화도 농촌적인 것에서 도시적인 것으로 완전히 변모했다. 이에 따라 도시화율은 1960년 33.8%(전국인구에 대비한 읍 급 이상 인구 기준)에서 89%로 늘어나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도시에 거주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 동안 이룬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는 주로 기초적인 생활여건 향상 등 양적 수요에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어 온 반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www.kci.go.kr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삶의 질에 관한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도시주민들이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이웃과의 공통적인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정체성과 공동체를 재형성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연행되는 축제와 이른바 전통축제와의 괴리와 간격은 일차적으로 농촌의 쇠퇴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인 축제는 변화를 강요받게 되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전통축제는 대부분 사라지거나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해 올 뿐이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일제의 말살정책과 함께 민간주도의 대동적 놀이로서의 축제적 원형이 소멸되었고, 광복 후의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일종의 문화적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1996년 문화체육부 발간 자료에 의하면 1949년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지역축제는 대구 약령시, 고양 행주대첩제, 강릉 단오제,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태안 황도붕기 풍어제, 남원 춘향제, 진주 개천예술제의 7개에 불과했다. 이후 6・70년대에는 농촌의 붕괴와 급격한 도시화를 동반하는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문화는 해체되고 우리 고유의 축제 정신은 잊히게 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축제의 팽창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이후 신설된 1000여개 이상의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단기간 내에 양적으로는 급격하게 팽창한 반면 차별성이 낮은 축제의 경쟁적인 확산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축제에 대한 연구 또한 대부분 축제의 경제적 효과, 축제기획과 지역활성화 방안 등에 치중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문화현상으로서의 축제와 축제를 통한 지역 및 도시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증대되고 있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가 희박한 실정이다. 따

www.kci.go.kr

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탐구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도시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축제와 도시의 관계로 한정시켜 우리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도시화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도시축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일천하기 때문이다.

2. 도시화와 지역 공동체문화

2-1. 전통사회에서의 공동체

지역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공동체의식 조성, 지역이미지 개선, 지역정체성 형성 등을 꼽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러한 축제의 여러 기능들 중 특히 우리는 '축제를 통한 공동체의식의 조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이미 지적되어 온 것처럼 "축제는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 또는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이며 "모든 종류의 축제들은 해당 축제의 기원이나 유래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이도 공동체 사회를 결속시키는 순기능"[1]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은 축제의 본질 자체에 내재하는데 "축제는 충동을 전제하며, 자아에로의 웅크림을 거부"[2]하는 본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사회에서의 축제를 조명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1) 이원태, 「외국의 지역축제 개관」, 『한국의 지역축제』, 문화체육부, 1996, 142쪽.
2) 죠르주 바따이유 지음,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 민음사, 1989, 234쪽.

www.kci.go.kr

다. 노동 집약적인 벼농사를 주로 한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공동 노동을 위한 마을 단위의 공동체적 결사체의 구성이 요구되었다. 특히 두레는 자연발생적 농촌의 생산 공동체로서 모내기, 김매기, 수확 등 농사의 여러 과정마다 서로 협력하여 농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지연·혈연으로 맺어진 구성원들이 한곳에 모여 살았던 전통사회의 지역구성원들에게 있어 '우리'라는 의식은 보편적인 것이었고, 공동의 작업과 공동의 즐김이 일상적이었다. 두레공동체는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 농악을 치며 흥을 돋우곤 하였다. 이것이 발달하여 두레농악이 되었고 힘든 농사일의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농사일이 끝나면 역시 풍물을 즐기며 풍년을 기원하고 술과 노래, 풍물로 마을축제가 벌어지곤 했다. 즉 전통사회의 두레란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즐기는 한국 전통사회의 대표적 생활공동체였던 것이다. 이것은 즐김과 하나 됨이 서로 다르지 않았던 전통적 축제의 원형적 모습이라 할 것이다.

풍물패를 앞세운 두레 구성원들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집안 구석구석의 액을 몰아내고 식솔들의 무사 평안함을 빌어주는 굿을 행하기도 했다. 마을사람 모두가 주체가 되어 사악한 액과 가정의 잡귀를 물리침으로서 마을의 안녕과 마을 구성원의 무사태평을 빌어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두레 굿은 구성원 서로서로의 끈끈한 공동체적 정서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동의 놀이마당이었다. 또한 3년이나 5년 혹은 10년 주기로 열렸던 별신굿은 전통사회 최대의 향토축제였다. 농사의 풍년이나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던 이러한 전통 굿들은 그 기원의 대상이 '우리 모두'에 관련되었으니만큼 더욱더 마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관심사였고,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일하고, 기원하고,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두레굿이나 마을굿은 주술을 통해 하늘과 땅을 경험하는 신비적인 의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란스럽게 떠들며 기분을 풀 수 있는 집단놀이로 승화시켜 공동체로부터의 이탈을 막는 역할"을 하였고

www.kci.go.kr

“마을굿의 대동제의는 주로 낡은 것과 새 것이 교차되는 분기점에서 이루어지며, 신성주간의 설정과 난장으로 연장되는 대동놀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마을 공동체성원 전체의 정신적 연대감을 획득하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3]가 되었던 것이다.

2-2. 도시화의 과정과 의미

해방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과정의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화 율은 세계최고에 이르렀다. “해방직후 13.0%였던 도시화 율은 [...] 2000년에 89%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4] 어림잡아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도시에 거주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도시팽창과정에서 도시의 문화성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최근 들어 “해방 이후 진행된 급속한 도시화 과정은 전국에 양적으로 비대화한 도시들을 다수 만들어냈을 뿐 아직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만한 도시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5]다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구의 도시들은 중세 및 바로크시대의 암흑도시와 산업혁명기의 석탄도시를 거쳐 오늘날의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해 왔다.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나타난 환경악화 등의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결과이다. 서구의 주요 도시들이 산업화와 함께 도시공동체를 만든 지 200년 이상이 경과한 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도시들은 4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리적 공간의 확대로 이해되는 도시화는 농촌 공동체의 침체 및 와해와 도시공동체의 미발달과 변형이라는 서로 연결된 양상을

3) 주강현, 『굿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168쪽.
4) 성경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의 비전과 과제」,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2쪽.
5) 성경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의 비전과 과제」,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5쪽.

나타내게 되었다. 농촌공동체는 와해되었고, 도시에서 과연 공동체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포함해서 도시 공동체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가 산업기반사회에서 정보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함에 따라 각 도시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근원적인 요구와 함께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에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보다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필요"로 하며 "창조적인 도시공간이 창조적인 인재를 모이게 하고 창조적 인재가 찾는 공동체는 도시의 물리적 매력보다 풍부한 질적 여가시설과 경험, 모든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6]이라는 인식의 전환에 근거한다.

우리나라 도시민의 삶의 질은 선진국의 주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2005년 머서 휴먼 리소스 컨설팅의 세계 215개 도시의 삶의 질 평가에서 서울은 90위로 평가받았다. 이는 도시의 삶의 질과 문화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 및 녹지면적, 각종 문화시설 등이 미흡하고, 도시의 획일화된 건축물과 무질서한 도시경관, 일반 시민들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도시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품격이 도시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갈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고려하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구체적 추진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삶터(Living), 일터(Working), 놀이터(Playing) 로서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여유 있고 문화적인 도시"의 세 가지로 압축해서 살고 싶은 도시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있다.

6)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이길태 옮김, 『창조적 계급』, 전자신문사, 2002, 1장 참조.

www.kci.go.kr

3. 축제와 도시공동체문화

3-1. 우리나라 도시발전과 공동체 형성

‘공동체’의 개념은 세계와 그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관한 모든 논의에 있어 인간은 이 세계에 속하며 이 세계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하며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도록 조장된다면 이는 타인에 대한 관심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고자하는 우리의 사회적 본성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7] 현대의 도시사회에서 파편화된 삶을 영위하는 도시민들에게 있어 공동체의식의 조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이유 또한 인간의 본질적 속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며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로부터 자기정체성과 자기인식이 형성되는 구체적인 인간”[8]인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와 도시화에 의해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는 위협받게 되었으며 “근대화의 과정은 인간의 필요 충족과 자아실현을 위한 공동체적 개방공간을 점점 축소시켜온 과정”이며 “근대화 과정에 대한 우리의 성찰은 [...]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복원할 수 있는 개방공간을 희구”[9]하게 되었다. 공동체적 개방공간이라는 논의는 축제와 도시 공동체라는 우리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하게 될 것이다.

현대 도시사회에서 개인은 다원적 속성을 지니며, 리오타르 식으로 표현하자면 “통일과 총체성이 강조되어 다수가 일자로 지향”[10]되는 모던적 사회와 대립된다. 이러한 포스트모던의 도시에서 “공동체가 사회

7)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도시공동체론』, 한울아카데미, 2003, 19쪽.
8)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도시공동체론』, 한울아카데미, 2003, 24쪽.
9)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도시공동체론』, 한울아카데미, 2003, 30쪽.
10)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지음, 이현복 옮김, 『포스트모던적 조건』, 서광사, 1992, 6쪽.

적인 블랙홀을 유발시키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는 우리 개개인들은 다층적이고 중첩적인 수많은 공동체 - 가족, 이웃, 아파트, 마을, 교회, 학교, 조합, 직장, 클럽 등 각종 조직체와 시, 도, 국가, 인류공동체 - 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사회에서는 하나의 특정한 공동체가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독점할 수 없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체가 개인에게 지나친 의무와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11] 이것이 도시에서 익명의 삶을 영위하는 현대의 인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동체의 개념이 아닐까 한다. 도시인들은 더 많은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 관계들 간의 유대감은 이전과 같이 강력한 것은 아니다. 또한 도시민들이 "친밀한 구성의 옛 공동체를 선호"[12]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느슨한 유대감을 갖고, 도시 생활에서 파생되는 공허함을 잊으며, 활력을 되찾으려 한다.

'거대담론(métarécit)'이 효력을 상실한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라는 개념이 존속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상호조화와 균형이라는 점일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파편화되고 익명성이 강조되는 대도시 사회에서 공동체가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때문인 것이다.

현대의 도시라는 특정한 사회공간 안에서의 공동체 개념의 재규정이 필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전제되었던 전통사회의 공동체와 지금의 공동체는 상이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간이 가진 속성 중 하나라면, 많은 부분 동질적이지 않은 도시민들이 공동의 무엇인가를 추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라는 공동체의 존재는 도시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다양성과 복잡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의 공동체란 일견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면서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11) 한국도시연구소 엮음, 『도시공동체론』, 한울아카데미, 2003, 39쪽.
12)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이길태 옮김, 『창조적 계급』, 전자신문사, 2002, 32쪽.

www.kci.go.kr

포기될 수 없는 가치라 할 수 있다. 인간생존의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 또한 바뀌어 왔으며,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체 역시 변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취미와 문화향유의 공동체이며 이것이 가장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제를 통해서이다. 특히 '질적인 삶'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휴가를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떤 지역은 돈을 버는 곳이고, 어떤 지역은 유흥을 즐기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나 "이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13]는 리처드 플로리다의 분석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질적인 삶을 요구하며, 문화를 향유하려하고,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 결속력이 강하지는 않은 '느슨한' 유대를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2. 한국축제의 현주소

축제는 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며 축제를 통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미지를 높이려는 문화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축제를 지향하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축제들은 양적으로는 급격하게 팽창하였으나,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축제관계자들의 자조적인 표현처럼 차별성이 낮은 축제의 경쟁적인 확산으로 인해 지역의 정체성 확보나 문화의 향유,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주제의식에 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www.kci.go.kr

13)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이길태 옮김, 『창조적 계급』, 전자신문사, 2002, 345쪽.

않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14] 하나는 공연예술축제에 대한 공연예술 지원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축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기보다는 공연예술행사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 유도라는 목적으로 펼쳐지는 국고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07년의 경우 연극, 음악, 무용분야의 '공연예술행사 37개 사업'에 관해 국고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춘천인형극제',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 등의 공연예술축제와 '경남국제음악콩쿠르',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등의 예술콩쿠르, '여성국극춘향전',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초청공연' 등의 공연물을 분류하지 않고 공연예술행사를 지원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공연예술행사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연예술축제와 일반적 공연물이 동일 범주 안에서 파악된다. 문화예술분야의 축제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구분이 행해져있지 않으며 문화예술축제의 독자적 영역이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공연축제'와 일반적 '공연물'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역시 축제에 대한 본질적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일단은 축제와 여타의 공연물들과의 구분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상이한 평가체계를 통한 '지원'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지원'체계 또한 여타의 다른 범주의 축제들과의 연관성 하에서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14) 2003년까지 문화관광부 예술국 전통지역문화과에는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민속축제'를 선정해 지원했다. 2003년의 경우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등 16개 축제에 39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전통민속축제'를 별도로 선정하여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축제의 지원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축제인데, 문화관광축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제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 관광상품으로 특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성 있는 축제로 육성"하며 "축제와 문화콘텐츠를 연결하여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는 것으로 축제지원 정책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사실 문화관광축제는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문화정책국의 소관이 아니라 관광산업국의 업무로 분류된다. 따라서 '문화' 보다는 '관광'에 무게가 실리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잠재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문화관광축제 선정제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사실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다는 사실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축제담당자에게 가지는 무게를 생각한다면 가벼이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광을 위주로 하는 축제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모든 축제의 미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개별 축제에 대한 소개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우수축제에 매년 선정"[15]된다던가, "문화관광부의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연속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16]던가 하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는 형편이다. 문화관광우수축제로 지정된다는 것이 각 축제에게는 2005년의 경우 4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의 지원금[17]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와 더불어 '국가의 공인을 받는 축제'가 됨과 동시에 매스컴에 오

15) 최민성, 「상징으로 읽는 문화축제 : 함평나비축제의 성과와 한계」,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6, 147쪽.

1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 『1등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도서출판 영남사, 2002, 1쪽.

17) 문화관광부의 지원기준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최우수 축제 3개 각 2억 5천만 원, 우수축제 7개 각 1억 3천만 지역육성축제 8개 각 6천만 원, 유망축제 9개 각 6천만 원 등 총 27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 지원했다.

르내림으로써 축제의 '성공'을 보장받고 확인받는 가장 확실한 길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축제는 우리나라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형편이다. 그러나 이른바 '1등 축제'로 자타가 공인하는 안동탈춤페스티벌에서조차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평가에서 나온 비교우위에 지나지 않고 아직도 축제다운 축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따르고 있다"[18]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축제가 아직 성숙한 문화축제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라는 제도 역시 절반의 성공밖에는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친 관광화와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정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 조직자들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특정한 스타일의 관광이벤트 시각과 마케팅 계획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나 협찬금이 삭감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19]라는 국내 유수 축제 관계자의 지적이 단순한 지적의 수준을 넘어 개별 축제 담당자에게는 위협으로까지 체감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뮌헨의 '10월축제', 브라질 리우나 프랑스 니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카니발들, 이웃나라 일본 홋카이도의 '눈 축제'와 같은 외국의 몇몇 선도적인 예들이 제시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관광객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 등과 같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지

1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 『1등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도서출판 영남사, 2002, 27쪽.
19) 정강환, 『21세기 지역개발형축제로의 선택 : 관광이벤트』, 월간이벤트, 2004, 82쪽.

www.kci.go.kr

역축제 활성화의 시기로 접어든지 10여년 만에 이미 국내의 몇몇 축제들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적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함평군 집계에 따르면 [...] 축제로 인하여 얻는 직간접 소득은 총 102억3천1백만 원으로 직간접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나비축제의 총 개최비용이 6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입에 의한 산출효과는 15.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20]는 등의 통계숫자가 보여주는 위력과 매혹은 일선 축제담당자들에게는 떨치기 쉽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해왔다. 그리하여 1000여개를 상회하는 국내의 거의 모든 축제들이 지난 몇 년간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너무도 심각한 것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률적인 평가체계로 인해 축제의 획일화, 균질화가 가속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선정 기준틀에 맞추어 한국의 축제가 재단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마임이라는 생소한 예술 장르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 2008년 20회를 맞은 춘천마임축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인 축제로 대내외적인 평가”[21]를 받아온 축제이다. 그러나 “시민의 축제”이자 “공연자와 관객이 한바탕 어울려 놀면서 진정한 축제의 정신을 되살리는 성과”[22]가 있었음을 인정받는 춘천마임축제 또한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압박감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춘천마임축제에 대한 소개책자에서는 춘천마임축제가 “2001년부터 문화관광부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되었음을 명시하고, “공연예술축제로서는 드물게 관광성을 살린 축제로 평가받고 있으나 관광을 통한

20) 유승우・박경철,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2004, 70쪽.
21) 전성희, 「춘천마임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연극연구』, 제7권, 259쪽.
22) 박성원, 『춘천문화예술축제연구-춘천인형극제와 춘천국제마임축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81쪽.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직접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한 편"이며 "향후 축제와 더불어 춘천을 관광할 수 있는 연계관광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밖에도 마임을 소재로 한 브랜드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3]라는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공연자와 관객이 한바탕 어울려 놀면서 진정한 축제의 정신을 되살리는 성과"를 가져온 축제라면 축제의 본질에 가장 근접한 축제이며 그것으로 이 축제는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한 것이라 본다. 이러한 축제에 관광 상품 개발이라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축제에 대한 우리사회 일반의 인식의 왜곡을 반영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축제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축제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보다는 한국 축제에 대한 이념적 상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절실히 필요하리라 본다.

관광이라는 유일한 색안경을 통해 축제를 바라보는 것은 축제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며 축제와 이벤트에 대한 완전한 개념적 혼동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축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에 대한 성찰의 부족을 반영한다. 우리의 연구는 그간 이루어진 문화관광축제 선정이라는 축제제도와 축제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육성에 의한 지역주민 소득증대라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의문과 반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축제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현대의 도시인들에게 축제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중점을 두어 고찰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축제란 '관광'이라기보다는 '문화현상'이기 때문이다.

www.kci.go.kr

23) 유현옥, 『춘천마임축제 리포트 : 도깨비 되어볼까』, 도서출판 다움, 2003, 236쪽.

4. 도시축제와 공동체문화 재창조를 위한 과제

4-1. 축제의 본질에 관한 재인식의 필요성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공동체는 크게 약화되거나 해체의 길을 걸어오고 있으며, 이를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행사나 축제 등을 통해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24]는 원론적 인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축제와 공동체 형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란 무엇이며 도시에서 공동체는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한 해답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전 농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벌어지던 축제에서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에 관해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분명하다. 비교적 소규모이며, 강한 친밀성을 지녔던 마을 사람들은 서로 모여 축제에 대해 같이 의논하고, 준비하고, 즐겼다. 이전의 축제에서는 '제(祭)'의 기능이 훨씬 강조되었고, 마을 공동의 안녕을 함께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긴다는 축제의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 훨씬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류정아의 보고처럼 "경제적이거나 실제적인 이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축제의 준비와 연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축제 준비기금을 추렴하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날 마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마을주민들은 매년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매년 그 축제를 기다리며 한 해의 축제가 끝나면 고취된 연대감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으로 일상적인 삶을 새롭게 충

24) 성경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의 비전과 과제」,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3쪽.

www.kci.go.kr

전"[25]시키는 남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수레행렬축제와 같은 예는 아직도 존재하며 축제의 이상을 충족시키는 사례들로 거론된다. 지금까지도 농업적 전통이 강하며 보수적인 색채를 보여주는 프로방스 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국의 유수한 축제들의 예는 축제 참가자들 간의 강한 협동심과 연대감을 보여준다. 이러한 축제들에 대한 설명에서는 한해의 축제가 끝나자마자 곧 다음해의 축제 준비를 시작하며 축제를 고대하는, 축제를 향한 이상적 미덕들이 어김없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에서조차 현대의 축제는 "'탈의미화' '탈신화화' '개체화되고 소비되는 축제'"[26]의 경향을 지니며, 많은 축제들이 스펙터클의 양상을 띠고 "원래 생겨난 문화적 맥락에서 벗어나 관객을 대상으로 무대에 올려지게 되면서 본래의 축제적 성격은 약화"되고 "축제적 연희자와 관람자, 즉 관객이 분리"[27]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공동체적인 구조 속에 있는 사회적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 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전통적 의미의 축제들과는 달리 "현대 연희되는 많은 축제들은 '도시화된 사회'의 모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축제가 연희되는 '사회적인 장소'는 더 이상 '공동체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28]

"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공동 구성원을 결집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기재로서 문화적인 요소가 전면으로 부각되었고, 축제가 바로 이 기능을 가장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29]됨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녕을 함께 기원한다는 의미가 거의 퇴색된 현대의 도시축제에서 공동체적 의미를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축제와 관련하여 '공동체'의 의미가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

25)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 2003, 59쪽.
26)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 2003, 48쪽.
27)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 2003, 29쪽.
28)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 2003, 47쪽.
29)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 2003, 27쪽.

www.kci.go.kr

성이 제시된다. 현대 도시축제에서의 공동체성이란 이전의 축제에서 이상적으로 말해지고, 추구해야할 모범형으로 제시되곤 했던 '거의 모든 지역민들이' '한 해의 축제가 끝난 직후부터 모여 거의 일 년 내내 일정한 시간' '심지어 자신의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다음해의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축제에 대한 꿈은 접어할 할 이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의 축제가 그 시대 사회의 생활축제, 삶의 축제였음으로 해서 그 시대 사회의 의식, 습관, 사고를 바탕으로 그 시대 사회에 맞는 기호들을 가지고 축제의 세계를 만들어 나온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맞는 기호를 읽어내어 그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그 기호들을 그리고 축제언어들을 오늘의 이 산업화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할 것이다."[30] 도시민들에게는 축제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대의 도시축제에서 추구되어야 할 공동체성이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역설적이게도 축제는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도시적 삶을 영위하는 21세기에 다시 번성하고 있다. 이러한 축제 현상과 더불어 축제 참가자들의 점증현상을 관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축제적 사건들의 만연은 자기 자신을 되찾고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성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31]기 때문이다. 현대 도시사회의 특징들 중 하나는 대도시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익명의 존재로서의 외로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정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완화되고

30) 이상일, 「대동놀이와 축제」, 『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6, 132쪽.

31) Sylvie Rouxel-Reynier, «Les festivals de théâtre, un exemple de manifestation de l'expression d'une solidarité esthétique» , *La fête comme jouissance esthétique*, sous la direction de Anne-Marie Green, L'Harmattan, 2004, p. 151.

www.kci.go.kr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널리 퍼지고, 더욱 심화되어왔다. 대도시에서 인간은 고립감을 느끼며, 이러한 고립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각자에게 용이한 일은 아니다. 확실히 자리 잡고 정주하는 사회가 없다는 결핍의 감정은 개인 정체성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중대한 위기로 부상된다. 프랑스 '아비뇽 Off' 축제의 성공 원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석은 오늘날의 도시축제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문제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익명에서 탈출하고, 자신과 동류를 발견하고, 거리에 왕래하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익명의 타인들을 보고, 거기에 속한다는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비뇽 Off 축제의 성공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32] 우리는 이러한 서술에서 도시에서의 새로운 공동체의식과 특히 축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도시공동체의식에 관한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한다.

축제의 시·공간은 대도시에서 경험되는 원자화된 사회적 환경과 투쟁한다. "'원자화된 사회적 환경'이란 인간관계의 단절과 얼굴을 맞대는 의사소통의 결핍"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점점 도구화되고 얼굴을 맞대고 이루어지는 교환은 점점 덜 구체화된다. 휴대전화, 인터넷 등은 불과 몇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의사교환의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화된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는 인간들 사이에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외시킨다. 사회적 동인들 간의 활기차고 살을 맞댄 존재에 의해서 축제적 사실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거리를 두었던 커뮤니케이션과 살아있는 의견 교환을 재통합한다."[33]

오늘날의 축제에서 느끼는 '우리'라는 일치의 감정은 축제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향유하는' 과정에 놓인다는 것이 우리

32) Paul Rasse, *Le théâtre dans l'espace public : Avignon Off*, Edisud, 2003, p. 67.
33) Paul Rasse, *Le théâtre dans l'espace public : Avignon Off*, Edisud, 2003, p. 150.

www.kci.go.kr

의 판단이다. ‘함께 만들어나가는’ 축제적 경험이 거의 불가능해진 현대사회에서라 하더라도, 혹은 그런 사회인만큼 더더욱 일상적 현실에서 존재하는 계급적, 사회적, 정치적, 상징적 거리가 축제의 시간동안은 사라지며, 비록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축제 참가자들이 축제의 시·공간 속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느낌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축제가 축제이게끔 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가 된다. 이러한 원칙이 상실된다면 현대사회에서 축제는 더 이상 축제로 존재할 수 없고 놀이공원이나 공연물과 다름없는 상태가 됨으로써 존재의 의미와 정당성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현대 도시축제에서는 특히 ‘만남’에 의해 공동체성이 표현된다. 공동체는 직접적 대면을 기초로 한다. 그런데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얼굴을 ‘맞대는’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조차 용이한 일이 아니다. 도시의 축제는 지역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이 되며, 만남의 경험을 통해 혹은 만남의 경험 가운데 지역사회를 재발견하게 된다. 말하자면 지역민과 지역 간의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관심 없이 지냈던 내 지역이 훌륭한 문화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지역사회의 ‘아름다움’과 ‘살기 좋음’을 재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야 말로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기초가 될 것이며, 지역민 하나하나가 가지게 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은 결국 ‘우리’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본적인 의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4-2.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도시축제 발전방향

4-2-1. 젊은 층의 참여 유도

우리나라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관광객 참여의 저조’라기

www.kci.go.kr

보다는 '젊은 층 참여의 부족'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앞으로의 도시축제는 특히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물론 주최 측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에서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노인 중심의 '관람객' 분포를 보여줄 뿐 젊은 층의 축제 참가자를 찾기란 용이한 일이 아님은 축제에 참가해 본 사람이면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다.[34]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가족단위 참가자나 장·노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의 통계적 측면에서 20-30대의 젊은 연령대가 차지하고 있는 분포는 결코 작지 않으며, 이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 향유의 욕구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제는 이러한 계층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이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축제를 건강하고 활기 있게 만드는 방안들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수적인 인구분포를 고려한 측면 이외에도 "도시의 새로운 문화는, 특히 세계화 속에서 상호 문화적인 공통점을 찾고 있는 지배적인 젊은 층에(다수를 점하고 있는 젊은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위 시골 문화적 뿌리에 대한 집착은 옛 도식 속에 정체성을 응고시켜 버리는 위험을 초래"[35]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시적 문화에 있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시골이나 '고향'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즐기고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측면이 조금 더 부각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향후 도시와 도시문화에서 젊은 층이 차지하는 의미에 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요청된다 할 것이며, 이는 특히 젊은 층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우리나라의 축제문화의 현실에서

34) 축제 참가자의 연령대별 분포 관련하여 시행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35) Fabrice Thuriot, *Culture et territoires*, L'Harmattan, 1999, p. 256.

www.kci.go.kr

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축제를 전통문화축제, 문화예술축제, 특산물축제, 주민화합 축제 등으로 범주구분을 하고, 각 범주에 따라 개별 축제 스스로 자신들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 특산물을 알리고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축제인지, 전통문화를 이용해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축제인지, 주민의 화합과 즐김을 위한 축제인지,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축제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각 축제가 지향하는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그 목적에 따라 당연히 축제의 소구대상도 차별화될 것이다. 축제가 젊은 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예술장르를 소재로 한 축제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예술'이라는 소재 자체가 젊은 층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사실 인구 4800만의 인구 중 1200만 이상이 관람한 영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계의 현실은 일견 영화라는 문화산업의 비약적 성공에 힘입은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즐길거리', 향유할 '문화'의 결핍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반하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도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축제는 마르셀 모스의 표현처럼 "공공연하게 주는 즐거움, 후하고 풍류가 있는 지출의 즐거움, 환대와 사적·공적인 축제의 즐거움"[36] 이라는 축제 자체의 본질에도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젊은 층이 하나의 축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러한 관심은 우리나라 축제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원봉사자 제도의 적극적 활용은 젊은 층의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방안들 중 하나일 것이다.

www.kci.go.kr

36) 마르셀 모스, 『증여론』, 한길사, 2000, 257쪽.

축제를 향유하고 같이 즐기는 공동체에서 발전하여 젊은 층이 축제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를 '같이' 만들어본 경험은 축제와의 거리를 좁히는 최선의 방안들 중 하나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젊은 층이 축제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그들의 관점이 반영되는 축제가 느리지만 튼실하게 만들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4-2-2. 관광 지향적 축제의 지양

축제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정책적 기조에 따른 축제의 획일화라는 문제점은 이미 강조된 바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러이러한 축제가 우리 지역의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니까' 축제에 참여하고, 우리지역에 자긍심을 지니며, '우리'가 '하나 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축제를 개발하였기에 방문객의 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축제의 성공/실패를 가름하기에 바빴고 이 같은 과정으로 말미암아 주체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지역민의 배제는 불가피"하였으며 "점차 지역민은 축제의 주도주체에서 배제되면서 더 이상 주체적 향유가 불가능"하게 되어 오히려 지역민이 축제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대다수 일반 지역민들은 무관심으로 일관"[37]하고 있다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에 대한 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양적인 팽창과 외형적 '성공'뒤에서 오히려 시민들은 이른바 '1등 축제'를 즐기고, 함께 향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져버린 것이다.

문화의 기본적인 요소는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다양성'과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포용성'이라 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독특한 색깔을 드

37) 이정혜,『지역문화축제와 지역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연구 - 안동지역의 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75-77쪽 참조.

www.kci.go.kr

러내는 것이 축제의 가장 큰 미덕 중 하나이며 세계화의 시대에 축제가 주목받고, 지역이 화두가 되는 까닭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천편일률적'이라 평가받는 우리나라 축제의 문제점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동반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문화란 조급하게 양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에르 상소 식의 이른바 "느림의 미학"이 적용되는 분야인 것이다. 각각의 지역이 지닌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를 성숙시켜 나아가는 것이 느리지만 확실한 축제 활성화의 길이다. 문화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만 파악하여 "'왕의 남자'를 넘어 한국영화 역대 최다관객 기록을 세운 영화 '괴물'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NF소나타 5300대에 맞먹고 총 경제적 효과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식의 소위 대박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축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축제를 축제답게 만들기 위해 위에서 언급된 측면에 공감하고 동의한다. 또한 많은 축제 연구자들 사이에 관광 지향적 축제의 양산이라는 문제는 한국축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들 중의 하나로 늘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축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중앙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국'인 이상 '관광'을 기조로 하는 축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단시실내에 해결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데에 우리나라 축제의 고민이 있다는 것이 솔직한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축제의 지향점을 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든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소규모 축제와,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의 성숙과 능동적 문화창조를 꿈꾸는 축제가 구분되어야 한다. 물론 현대 축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될 수 없음이 현실이다. 그러나 도시의 문화적

www.kci.go.kr

역량의 성숙과 증대 역시 도시 이미지와 관련하여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4-2-3. 각 도시의 특성과 부합하는 축제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이 도시로 분류되는데, 같은 '도시'라 할지라도 각각의 도시마다 특성이나 역사적 배경은 상이하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도시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의 광역시들, 예전부터의 전통과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도시들, 최근에 만들어진 신도시들, 이제 건설되기 시작하는 혁신도시들, 공업 중심도시들, 서비스업 중심 도시들... '도시'라는 명사로 일괄적으로 불리는 각각의 도시는 저마다 경제적 여건, 발전의 정도, 문화적 기반, 주민의 만족도 등이 상이하다. 이에 따라 각 도시에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나 내세우고자 하는 도시 이미지도 달라지고 각 도시의 축제도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업도시 울산의 대표축제는 처용 문화제이다. 그러나 처용 문화제의 주요 행사들 중 울산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행사는 거의 없으며, 1976년에 처음 시작되어 40년 이상 지속되어온 오랜 역사의 축제임에도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처용 문화제가 표방하고 있는 처용이라는 인물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주요한 의미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분히 미신적이고 주술적 성격을 띤 처용설화는 첨단산업, 과학, 효율성, 합리적 경영 등으로 대표되는 울산의 지역성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출신 지역이 다양하고, 인구 유동이 잦으며, 지역 사회와 연계된 생활 경험이 짧은 울산 주민들에게 처용이라는 이미지가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 강한 상징성도 갖고 있지 못"[38]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처용설화를 공업도

38) 전성표, 「공업도시 전통축제의 위상과 전망」,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새길, 1999, 289쪽.

www.kci.go.kr

시 울산의 이미지에 맞도록 재해석, 재생산하는 것에서 실패하였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전의 설화나 역사는 현재의 필요에 의해 '발명'되고 '만들어진다.'[39] 도시의 현재라는 거울에 비추어 도시의 과거를 재생산하여 전통적인 축제를 열거나, 다른 문화·예술적인 축제를 만들거나 간에 축제는 각각의 도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상과 부합하는 것이 될 때 자연스레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와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향하는 모습에 대해 이해하고, 그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고 드러낼 능력을 가진 지역에 뿌리박은 축제 전문가, 더 나아가 문화전문가의 존재가 절실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축제들이 그런 것처럼 서울의 '기획사'에 의존하여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시스템으로서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고히 드러내고 지역에 뿌리박은 축제가 되기 어렵다. 축제의 이름만 다를 뿐 대부분의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의 중복, 축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연예인 동원이나 '노래자랑'류의 비슷비슷한 축제의 양산으로 인해 '천편일률적'이라 지적되는 대한민국 축제의 문제점은 바로 이 점에서 기인한다. 그럴듯한 아이템을 선정해 중앙의 기획자에게 일임하며, 그를 통해 대박을 기대하는 많은 대한민국 축제의 상황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크게 없어 보인다. 지역문화가 사실상 거의 고사했으며 자력으로 축제를 만들어낼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축제는 이제 양적인 성장을 거의 이루어낸 시점이다.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문화적 역량을 튼실하게 다져가는 것이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9)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박지향·장문석 옮김,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참조.

www.kci.go.kr

4-2-4. 함께 '향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축제

축제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주기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축제 참가자들은 일 년이라는 시간의 기준점으로 일상과는 단절된 축제의 시간을 즐긴다. 이러한 축제의 시간은 반복되고 체계화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축제 속에서 느끼는 일체감이나 연대, '우리'라는 의식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다음해, 정확히 이 장소에서 다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축제는 영혼을 살찌우는 일상의 탈출구가 된다.

현대인들은 옆에서 살아가지만 '함께' 살아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축제의 시·공간은 타인과의 만남의 장으로 기능하며, 축제 참가자들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다. 아비뇽 페스티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는 우리의 축제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 본다. "연극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은 암묵적 동의이다. 너무도 소규모의 공연이고, 관객은 너무도 빽빽하게 앉아있고, 때때로 기온은 너무 더운 대낮에 벌어지거나 밤늦은 시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야외에서 보기에는 너무 추운 경우도 생긴다. 관객들은 서로가 이 공연의 열광적인 팬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것을 교환한다. 아마도 이 순간이 특별하고, 유일하고, 시간이 있으며, 제약이 없기 때문에. [...]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때로는 홀로 축제에 참여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된다."[40]

축제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축제를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가운데 만들어진다. 그러나 도시, 특히 대도시에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며 느끼는 공동체 의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나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40) Nancy Midol, «Socialité festivalière et démocratie participative», *Le théâtre dans l'espace public*, Edisud, 2003, p. 82.

www.kci.go.kr

이러한 현실에서 제시 될 수 있는 것이 '향유'의 공동체로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하나됨의 의식이다. 축제라는 '특별한' 순간이기에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 모두 동일한 것을 보고, 행하며, 같은 것을 느낀다는 사실에서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소극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일 수 있는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됨의 느낌이 자신이 정주하는 지역에 기반하고, 지역을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축제를 같이 향유하면서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지니는 가장 큰 미덕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도시, 특히 대도시에서 공연물 중심으로 연희되는 축제에서는 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기 보다는 축제의 순간 함께 즐기고,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강조점이 놓여야 할 것으로 본다. '향유'의 공동체로서의 풍부하고 강렬한 경험은 도시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 줄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밑바탕 위에서 축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됨의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하여도, '향유'의 공동체로서의 경험은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5. 맺음말

최근 도시집중 및 농촌 붕괴 현상에 따라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정책과 축제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했으며, 궁극적으로 문화공동체 관점에서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www.kci.go.kr

미래의 축제형식에 주목하고 있는 짐(H.J. Simm)은 그가 편집한 『축제』의 후기에서 축제의 역사는 시대정신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변모의 과정이고 불변의 전통축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전통적 축제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축제를 본질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일 것이다. 과거의 축제가 그 시대와 사회에 고유한 의식, 습관, 사고를 바탕으로 그에 적합한 기호들을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 왔듯이 오늘날 후기산업사회의 시대의식과 감각에 맞는 축제의 기호들이 도출된다면 현대 대중사회의 공동체가 함께 교감하는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많아질수록 정신적·정서적 여유를 갖지 않으면 도시문명의 비정한 굴레에 짓눌려 버릴 현대인들에게는 과거의 축제를 대신할 오늘의 생활축제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도시축제 발전방향'으로 '젊은 층의 참여 유도', '관광 지향적 축제의 지양', '각 도시의 특성과 부합하는 축제' 그리고 '함께 향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축제'라는 거시적 방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각각의 안에 대해 한편의 논문이 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향후 보완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제이플러스 애드, 2006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유형별 해외사례』, 2006
국토연구원,『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아카데미, 2005
국토연구원,『세계의 도시』, 도서출판 한울, 2002
계기석 외,「도시정체성과 도시발전」,『도시정보』, Vol.229, 2001, 3-15쪽
김규원,「도시마케팅과 이벤트」,『도시문제』, Vol.36, No.394, 2001, 21-32쪽
김영순・최민성 외 지음,『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6
김홍수,『축제와 문화 거버넌스』, 한국학술정보, 2007
류정아,『축제인류학』, 살림, 2003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이길태 옮김,『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전자신문사, 2002
문화관광부,『2005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5
문화체육부,『한국의 지역축제』, 1996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축제종합보고서』,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공간 기획에 관한 연구』, 2002.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1등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도서출판 영남사, 2002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박지향・장문석 옮김,『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유승우・박경철,『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04
유현옥,『춘천마임축제 리포트 : 도깨비 되어볼까』, 다움, 2003
이무용,『서울형 축제 발전 및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이상일 엮음,『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6
이현식,「한국의 지역축제 지원정책 현황」,『축제정책과 지역현황』,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109-134쪽
전성희,「춘천마임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한국연극연구』, 제7권, 259-298쪽
전영옥,「어메니티가 도시경쟁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03.12

www.kci.go.kr

정강환, 『21세기 지역개발형축제로의 선택 : 관광이벤트』, 월간이벤트, 2004
정경훈, 전종훈, 『성공하는 문화마케팅을 위한 축제와 이벤트』, 글누림, 2006
존 리더 지음, 김명남 옮김, 『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 지호, 2006
주강현, 『굿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최길성, 「도시축제와 민족주의」, 『비교민속학』, 제21집, 2001, 463-474쪽
한상진, 『도시와 공동체』, 한울, 1999
한국도시연구소, 『도시공동체론』, 한울, 2003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심층조사 보고서』, 200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역축제의 효율적 조직과 운영을 위한 매뉴얼』, 2006

BAILLET Jean-Luc et SONGY Jean-Marie, *Le théâtre de rue : 10 ans d'Eclat à Aurillac*, Editions Plume, 1995
GREEN, Anne-Marie, *Un festival de théâtre et ses compagnies : Le off d'Avignon*, L'Harmattan, 1992
LOYER, Emmanuelle, *Le théâtre citoyen de Jean Vilar : Une utopie d'après-guerre*, PUF, 1997
LUCCHINI, Françoise, *La culture au service des Villes*, anthropos, 2002
PEDLEC, Emmanuel, 'Le *In* d'Avignon : Vilar réinventé', Le Monde, 9 juillet 2002
RASSE, Paul, *Le théâtre dans l'espace public : Avignon Off*, Edisud, 2003
RASSE, Paul, 'Le *off* d'Avignon : Vilar dépassé', Le Monde, 4 juillet 2002
THURIOT, Fabrice, Culture et Territoires : Les voies de la coopération, L'Harmattan, 2003
Affaires culturelles et territoires, Sous la direction de Philippe Poirrier et de Jean-Pierre Rioux, Comité d'histoire du ministère de la cultur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2
La Culture de l'universel au particulier, coordonné par Nicolas Journet, Editions Sciences Humaines, 2002,
La fête comme Jouissance esthétique, sous la direction de Anne-Marie GREEN, L'Harmattan, 2004
Le(s) public(s) de la culture, sous la direction de Olivier Donnat, Paul Tolila, Presses de Sciences Po, 2003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Urban Festival and the Form of Community Culture

Kim, Mi-Sung

For the most part, recent debates on festival have tended to center around the question of economical effects, festival planning and measures to revitalize festivals. Relatively, despite the rise of growing attention, few have attempt to deal the festival as a phenomenon of urban culture or formation of urban community. As a consequence of rapidly progressed urbanization, the rate of urbanization in korea reaches on the top rug of the world. The rate of urbanization reached at 89% in 2000, while 13%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But little attention were given to the cultural aspects of the city during the rapid process of urbanization. The recent research question emerged from the reflection that the process of urbanization, which has been proceeded since 1945, has been brought to a conclusion of numerous hypertropic metropolises where comfortable urban life wouldn't be permitted. One of the most prominent plans which could attract people and guarantee happy urban life would be the revitalization of festival cause it fulfills the desire of modern people who pursue the self-contentment based on the wealth, information and margin which were accumulated through the progress of the industry and technology. The festival could provide everyday culture that is flowing anywhere in the city and cultural deviation. Therefore we need to explore the present situation and direction to the development of urban festival so that urban people will elevate the quality of life and enjoy the cultural

www.kci.go.kr

taste in their daily life and grope for the appropriate model of festival which could be suitable for Korean situation. At this point, I suggested the problems and the devices of improvement in terms of cultural community.

To recreate the urban festival and community culture, we will need to recognize the real substance of festival and community culture in urban area. The community is based on the direct facing. The urban festival makes the fields where the inhabitants meet together and rediscover their region through the experience of meeting or in the course of meeting. In other words it provides the opportunities of meaningful meeting to the inhabitants. They will also rediscover the beauty and comfort while observing the changement of their region. The changement of consciousness will be the cause for getting self-pride towards their region, which will be converted into a motive of elevating community consciousness of 'our region'. In conclusion, I'd like to suggest four principals for improving the urban festival as a plan of forming community culture. The principals are as follows; 1) to lead the young to join the festival 2) to sublate tourism oriented festival 3) a festival in accordance with the peculiarity of each city 4) enjoyable festival as a community culture. (Key words: festival, urban festival, tourism, community culture)

위 논문은 2008년 10월 19일 투고되었고, 2008년 12월 1일 심사 완료 후, 12월 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